날마다 다시 만나는

삶을 비추는 한 줄

성인들의 말씀 | 366일 만년일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이 책의 주인 _____

이 책의 우리말 문장은 원전의 뜻을 바탕으로 풀어 쓴 글입니다.

01월

01

가득 채운 채 붙들고 있기보다, 알맞을 때 멈추는 편이 낫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9장

持而盈之，不如其已

지이영지 불여기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02

먼저 말한 대로 행하고, 그 뒤에 말을 이어 간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先行其言，而後從之

선행기언 이후종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03

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날 줄도 아는 것이 하늘의 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9장

功遂身退，天之道

공수신퇴 천지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04

군자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君子不器

군자불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05

있는 것은 이로움을 주지만, 비어 있는 데서 쓰임이 생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1장

有之以為利，無之以為用

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06

넓게 배우고 뜻을 두텁게 하며, 가까운 일부터 묻고 생각한다.

자하 | 『논어』 자장

博學而篤志，切問而近思

박학이독지 절문이근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07

비움을 지극하게 하고, 고요함을 깊이 지킨다.

노자 |『도덕경』16장

致虛極，守靜篤

치허극 수정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08

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,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求諸己，小人求諸人

군자구저기 소인구저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09

소박함을 보고 본래의 꾸밈없음을 품으며, 사사로운 욕심을 줄인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9장

見素抱樸，少私寡欲

견소포박 소사과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0

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여기지 않는다.

소크라테스 | 플라톤, 『변명』 21d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1

굽힐 줄 알기에 온전할 수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2장

曲則全

곡즉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12

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人而無信，不知其可也

인이무신 부지기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13

말이 드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3장

希言自然

희언자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4

배워도 아직 미치지 못한 듯하고,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태백

學如不及，猶恐失之

학여불급 유공실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5

남을 이기는 데에는 힘이 필요하지만, 자신을 이기는 데에는 강함이 필요하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33장

勝人者有力，自勝者強

승인자유력 자승자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16

날마다 몰랐던 것을 알고, 달마다 익힌 것을 잊지 않는다.

자하 | 『논어』 자장

日知其所亡，月無忘其所能

일지기소무 월무망기소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17

도를 듣는 사람은 부지런히 그것을 행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1장

上士聞道，勤而行之

상사문도 근이행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8

어짊이 어찌 멀리 있겠는가. 내가 어질고자 하면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仁遠乎哉？我欲仁，斯仁至矣

인원호재 아욕인 사인지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19

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6:3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0

옛사람은 자신을 위해 배웠고, 지금 사람은 남에게 보이려고 배운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古之學者為己，今之學者為人

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21

학문은 날마다 더해 가지만, 도를 따르는 일은 날마다 덜어 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8장

為學日益，為道日損

위학일익 위도일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22

먼 일을 깊이 헤아리지 않으면 가까운 걱정이 생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人無遠慮，必有近憂

인무원려 필유근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3

아는 이는 쉽게 말하지 않고, 말을 앞세우는 이는 알지 못할 수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56장

知者不言，言者不知

지자불언 언자부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24

하루 종일 먹지 않고 밤새 생각해 보았지만,
배우는 것만 못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吾嘗終日不食，終夜不寢，以思，無益，不如學也

오상종일불식 종야불침 이사 무익 불여학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5

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, 복에는 화가 숨어 있을 수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58장

禍兮福之所倚，福兮禍之所伏

화혜복지소의 복혜화지소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6

깨어 살피는 삶과 방심하여 흘려보내는 삶은 같지 않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1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7

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의 물을 받아들이는
까닭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6장

江海所以能為百谷王者，以其善下之

강해소이능위백곡왕자 이기선하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28

남의 잘못을 살피기보다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살펴라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50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29

내게는 세 보물이 있다. 자애와 검소함,
남보다 앞서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7장

一曰慈，二曰儉，三曰不敢為天下先

일왈자 이왈검 삼왈불감위천하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1월

30

삶은 가진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만
이루어지지 않는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12:15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1월

31

하늘의 도는 이롭게 하면서도 해치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天之道，利而不害

천지도 리이불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01

우리 집 어른을 섬기는 마음을 다른 집 어른에게까지 넓히고, 우리 아이를 아끼는 마음을 다른 아이에게도 넓힌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상

老吾老，以及人之老；幼吾幼，以及人之幼

노오노 이급인지노 유오유 이급인지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02

내가 서고 싶다면 다른 이도 서도록 돕고,
내가 이루고 싶다면 남도 이루도록 돕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옹야

己欲立而立人，己欲達而達人

기욕립이립인 기욕달이달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03

성인은 사람을 살피고 보살피기에 버려진 사람이 없도록 한다.

노자 |『도덕경』27장

聖人常善救人，故無棄人

성인상선구인 고무기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04

가까운 이를 아끼는 마음에서 사람을 어질게 대하고, 그 마음을 모든 생명에게 넓힌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親親而仁民，仁民而愛物

친친이인민 인민이애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05

노인은 편안하게, 친구는 믿음으로, 젊은이는 따뜻이 품고 싶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공야장

老者安之，朋友信之，少者懷之

노자안지 붕우신지 소자회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06

다른 이와 함께 선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君子莫大乎與人為善

군자막대호여인위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07

선한 이에게도 선하게 대하고, 그렇지 않은 이에게도 선하게 대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9장

善者吾善之，不善者吾亦善之

선자오선지 불선자오역선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08

어진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, 예를 갖춘 이는 사람을 공경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하

仁者愛人，有禮者敬人

인자애인 유례자경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09

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공경하는 일은 어짊의 뿌리일 수 있다.

유자 |『논어』학이

孝弟也者，其為仁之本與

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0

그릇됨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로움의 시작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羞惡之心，義之端也

수오지심 의지단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1

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은 예의 시작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辭讓之心，禮之端也

사양지심 예지단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2

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시작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是非之心，智之端也

시비지심 지지단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3

글과 배움으로 벗을 만나고, 벗과 더불어 어짊을 돕는다.

증자 | 『논어』 안연

君子以文會友，以友輔仁

군자이문회우 이우보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4

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건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6:31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5

자로는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말해 주면 기뻐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子路，人告之以有過則喜

자로 인고지이유과즉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6

사람은 모두 두려움을 알고,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29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7

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함께 살핀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공야장

聽其言而觀其行

청기언이관기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18

남에게서 선을 취해 행하는 것은 그와 함께 선을 이루는 일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取諸人以為善，是與人為善者也

취저인이위선 시여인위선자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19

서로 다른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.
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| 『명상록』 2.1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0

분노는 분노 없음으로, 악은 선으로,
인색함은 베풂으로, 거짓은 진실로 이겨라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23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1

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 모자라는 곳에 보탠다.

노자 |『도덕경』77장

天之道，損有餘而補不足

천지도 손유여이보부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2

군자는 마음이 넓고 평탄하며, 소인은 늘 근심에 매인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君子坦蕩蕩，小人長戚戚

군자탄탕탕 소인장척척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3

큰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꾸밈없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하

大人者，不失其赤子之心者也

대인자 불실기적자지심자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24

어진 이는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, 얻는 것은 뒤로 미룬다.

공자 | 『논어』 옹야

仁者先難而後獲

인자선난이후획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5

하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
자비로우라 하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6:36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6

어짊의 실제는 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데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仁之實，事親是也

인지실 사친시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7

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밝아지고,
스스로 옳다 내세우지 않기에 드러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2장

不自見，故明；不自是，故彰

부자현 고명 부자시 고창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2월

28

우러러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,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仰不愧於天，俯不怍於人

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2월

29

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, 믿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믿음을 건넨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9장

信者吾信之，不信者吾亦信之

신자오신지 불신자오역신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1

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데에도 기쁨이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學而時習之

학이시습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2

멀리서 벗이 찾아오는 일은 반갑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有朋自遠方來

유붕자원방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3

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人不知而不慍

인부지이부온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04

뿌리를 힘쓰면 길은 그 자리에서 생겨난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君子務本，本立而道生

군자무본 본립이도생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05

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7:7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06

허물을 알았다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過則勿憚改

과칙물탄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7

할 일에는 부지런하고 말은 조심스럽게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敏於事而⊠於言

민어사이신어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8

길을 아는 이에게 가까이 가 자신을 바로잡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就有道而正焉

취유도이정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09

자리가 없음을 걱정하기보다 설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살핀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不患無位，患所以立

부환무위 환소이립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10

옳은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見義不□，無勇也

견의불위 무용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1

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知之□知之，不知□不知

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2

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일은 남겨두고 말을 신중히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多聞闕疑，⌧言其餘

다문궐의 신언기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3

많이 보되 분명하지 않은 일은 남겨두고 행동을 살핀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多見闕殆，☒行其餘

다견궐태 신행기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4

깊은 호수가 맑게 가라앉듯 지혜로운 이의 마음도 고요해진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82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5

큰 사당에 들어가서는 일마다 물었다.

공자 | 『논어』 팔일

子入太廟，每事問

자입태묘 매사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16

어진 마음이 깃든 곳이 아름답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里仁⊠美

리인위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17

아침에 길을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朝聞道，夕死可矣

조문도 석사가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8

어진 이는 어짊에 편안하고 지혜로운 이는 그 가치를 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仁者安仁，知者利仁

인자안인 지자리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19

내용과 꾸밈이 고르게 어우러질 때
사람다워진다.

공자 | 『논어』 옹야

文質彬彬，然後君子

문질빈빈 연후군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0

이김은 원한을 낳고 패배는 괴로움을
낳는다. 승패를 내려놓은 이는 평온하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01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1

길에 뜻을 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志於道

지어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2

조용히 새기고 배우기를 싫증내지 않으며
나누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默而識之，學而不厭，誨人不倦

묵이식지 학이불염 회인부권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3

스스로 궁금해하고 말하려 애쓸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不憤不啟，不悱不發

불분불계 부비부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4

자로는 들은 말을 아직 실천하지 못했으면
또 듣기를 두려워했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공야장

子路有聞，未之能行，唯恐有聞

자로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25

좋은 점은 따르고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나를 고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擇其善者而從之，其不善者而改之

택기선자이종지 기불선자이개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6

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견주었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7:24–25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3월

27

뒤에 오는 사람을 가볍게 볼 수 없다. 그가 지금보다 못할 줄 누가 알겠는가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後生可畏，焉知來者之不如今也

후생가외 언지내자지불여금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8

우리를 흔드는 것은 일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판단일 수 있다.

에픽테토스 | 『엥케이리디온』 5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29

일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배우고, 배움에 여유가 있으면 일을 맡는다.

자하 | 『논어』 자장

仕而優則學，學而優則仕

사이우칙학 학이우칙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30

삶은 유한하고 앎은 끝없으니, 유한한 삶으로 끝을 좇으면 위태롭다.

장자(우언 포함) | 『장자』 양생주

吾生也有涯，而知也無涯。以有涯隨無涯，殆已

오생야유애 이지야무애 이유애수무애 태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3월

31

길을 배우는 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.

공자(자유가 전함) | 『논어』 양화

君子學道則愛人

군자학도칙애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1

가장 좋은 것은 물과도 같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上善若水

상선야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2

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水善利萬物而不爭

수선리만물이부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3

머물 때는 알맞은 곳에, 마음은 깊은 못처럼 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居善地，心善淵

거선지 심선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4

말에는 믿음을, 바르게 다스리는 데에는 질서를 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言善信，正善治

언선신 정선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5

있음과 없음은 서로 생기고,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룬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장

有無相生，難易相成

유무상생 난역상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6

길고 짧음, 높고 낮음은 서로를 비춘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장

長短相較，高下相傾

장단상교 고하상경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07

일을 이루고도 그 공에 머물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장

功成而弗居

공성이불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8

공을 움켜쥐지 않기에 그 공이 사라지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장

夫唯弗居，是以不去

부유불거 시이부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09

씨를 뿌린 이가 잠들고 깨어나는 사이에도
씨앗은 자라난다.

예수님 | 『마가복음』 4:26–27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10

자신을 뒤에 두니 앞서고,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니 보전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장

後其身而身先，外其身而身存

후기신이신선 외기신이신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1

낳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일하고도 기대어 자랑하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0장

生而不有，為而不恃

생이부유 위이부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2

먼 곳으로 떠나는 쉼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찾아오는 고요도 있다.
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| 『명상록』 4.3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3

이 길을 지키는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5장

保此道者，不欲盈

보차도자 부욕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4

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, 하늘은 도를,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른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5장

人法地，地法天，天法道，道法自然

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5

꽃을 모아 여러 화환을 엮듯, 사람도 여러 선행을 쌓아 간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53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16

밝음을 알면서도 어두운 자리를 지킨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8장

知其白，守其黑

지기백 수기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17

돌아감은 도가 움직이는 모습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0장

反者道之動

반자도지동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18

부드럽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0장

弱者道之用

약자도지용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19

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고 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1장

大器晚成

대기만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20

큰 소리는 도리어 소리가 드물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1장

大音希聲

대음희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1

도는 드러나지 않아 이름 붙일 수 없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1장

道隱無名

도은무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2

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가지를 내는 모습을 이야기하셨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13:31-32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3

움직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5장

躁勝寒，靜勝熱

조승한 정승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4

맑음과 고요함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바탕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5장

清靜為天下正

청정위천하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5

조화를 아는 것을 한결같음이라 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55장

知和曰常

지화왈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6

부지런히 살피고 자신을 다스려 스스로 의지할 섬을 만든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5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27

일이 생겨나기 전부터 살피고 힘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為之於未有

위지어미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28

아홉 층 높은 누대도 흙 한 줌씩 쌓아 오른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九層之臺，起於累土

구층지대 기어누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4월

29

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자신의 풍속을 즐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0장

安其居，樂其俗

안기거 낙기속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4월

30

세상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8장

天下莫柔弱於水

천하막유약어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01

부모님의 연세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없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父母之年，不可不知也

부모지년 불가부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02

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一則以喜，一則以懼

일칙이희 일칙이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03

부모님께도 잘못을 보거든 부드럽게 말씀드린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事父母幾諫

사부모기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04

부모님이 계실 때 먼 길을 떠나는 일을 신중히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父母在，不遠遊

부모재 불원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05

떠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리도록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遊必有方

유필유방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06

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밖에서는 웃어른을 존중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弟子入則孝，出則弟

제자입칙효 출칙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07

부모님을 돌볼 때 정성을 다한다.

자하 | 『논어』 학이

事父母，能竭其力

사부모 능갈기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08

벗과 사귈 때 하는 말에 믿음이 있다.

자하 | 『논어』 학이

與朋友交，言而有信

여붕우교 언이유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09

부모님은 자녀가 아프지 않을까 마음을 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父母，唯其疾之憂

부모 유기질지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10

부양만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今之孝者，是謂能養

금지효자 시위능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11

내 허물을 일러 주는 사람을 보물을
가리키는 사람처럼 만난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76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12

따뜻한 낯빛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일이 어렵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色難

색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13

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아끼는 정이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등문공 상

父子有親

부자유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14

맡은 자리와 관계에는 마땅히 지킬 의로움이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등문공 상

君臣有義

군신유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15

나이와 세대가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질서가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등문공 상

長幼有序

장유유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16

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등문공 상

朋友有信

붕우유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17

세상의 일을 살피다 보면 나라와 집, 끝내 내 삶에 닿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天下之本在國，國之本在家，家之本在身

천하지본재국 국지본재가 가지본재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18

부모를 정성껏 섬기는 일은 여러 일의 뿌리가 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事親，事之本也

사친 사지본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19

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,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7:12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0

의로움은 가까운 형제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義之實，從兄是也

의지실 종형시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21

지혜는 가까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잃지 않는 데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智之實，知斯二者弗去是也

지지실 지사이자불거시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2

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없듯, 실천하지 않는 좋은 말에는 열매가 없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51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23

기쁨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데서도 피어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樂之實，樂斯二者

낙지실 낙사이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4

가까운 이를 아끼는 것도 어짊이다.

맹자 |『맹자』고자 하

親親，仁也

친친 인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25

어른을 존중하는 것도 의로움이다.

맹자 |『맹자』진심 상

敬長，義也

경장 의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6

어린아이도 자신을 돌보는 이를 사랑할 줄 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孩提之童，無不知愛其親者

해제지동 무부지애기친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7

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다.

예수님 | 『요한복음』 13:3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28

부모님과 형제가 평안한 일도 큰 기쁨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父母俱存，兄弟無故，一樂也

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낙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5월

29

좋은 인연을 만나 그 성장을 돕는 것도 기쁨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得天下英才而教育之，三樂也

득천하영재이교육지 삼낙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30

돈과 명예를 돌보는 만큼 지혜와 영혼도 돌보고 있는가.

소크라테스 | 플라톤, 『변명』 29e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5월

31

힘써 헤아리고 너그러이 행하는 것이 어짊에 가깝다.

맹자 |『맹자』진심 상

強恕而行，求仁莫近焉

강서이행 구인막근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01

말을 곱게 꾸미고 낯빛만 다듬는 데 어짊이 깃들기는 어렵다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

巧言令色，鮮矣仁

교언령색 선의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02

옛사람은 말이 행동에 미치지 못할까 봐 말을 삼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古者言之不出，恥躬之不逮也

고자언지부출 치궁지부체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3

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도록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言寡尤，行寡悔

언과우 행과회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4

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말이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有德者必有言

유덕자필유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5

말을 잘한다고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有言者不必有德

유언자부필유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6

사랑한다면 그가 애쓰도록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愛之，能勿勞乎

애지 능물노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07

그렇다는 말은 그렇다고, 아니라는 말은 아니라고 한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5:37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8

때가 되었을 때 말하니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았다.

공명가 |『논어』헌문

夫子時然後言，人不厭其言

부자시연후언 인불염기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09

기쁠 때 웃으니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않았다.

공명가 |『논어』헌문

樂然後笑，人不厭其笑

낙연후소 인불염기소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0

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君子恥其言而過其行

군자치기언이과기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1

말에는 충실함과 믿음을, 행동에는 정성과 공경을 담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言忠信，行篤敬

언충신 행독경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12

말해야 할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놓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可與言，而不與之言，失人

가여언 이부여지언 실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3

말할 때가 아닌데 말하면 말을 잃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不可與言，而與之言，失言

불가여언 이여지언 실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14

지혜로운 이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말도 그르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知者不失人，亦不失言

지자불실인 역불실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5

말이 꼭 필요한 순간인지 살피고, 필요하다면 짧게 말한다.

에픽테토스 | 『엥케이리디온』 33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16

의로움을 바탕 삼고 예로써 행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義以□質，禮以行之

군자의이위질 례이행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17

말만 듣고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不以言擧人

군자부이언거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8

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옳은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不以人廢言

부이인폐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19

자신이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其恕乎！己所不欲，勿施於人

기서호 기소부욕 물시어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0

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한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6:45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1

여럿이 좋다고 할 때에도 스스로 살핀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眾好之，必察焉

중호지 필찰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22

뜻 없는 천 마디 말보다 듣고 평온해지는
한마디가 낫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00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3

볼 때에는 분명히 보기를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視思明

시사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6월

24

들을 때에는 밝게 듣기를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聽思聰

청사총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5

표정을 지을 때에는 따뜻함을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色思溫

색사온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6

몸가짐에는 공손함을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貌思恭

모사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7

말할 때에는 진실한 정성을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言思忠

언사충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8

거친 말은 또 다른 거친 말을 불러오기도 한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33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29

의문이 생기면 묻는 일을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疑思問

의사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6월

30

화가 날 때에는 뒤따를 어려움을 생각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忿思難

분사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01

온갖 것이 일어나고, 나는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본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萬物並作，吾以觀復

만물병작 오이관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2

무성하게 일어난 것들은 저마다 뿌리로 돌아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夫物芸芸，各復歸其根

부물예예 각복귀기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03

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고요함이라 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歸根曰靜

귀근왈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4

이를 생명의 자리로 돌아감이라 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是謂復命

시위복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5

본래의 흐름에 돌아가는 것을 한결같음이라 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復命曰常

복명왈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6

수고한 제자들에게 따로 가서 잠시 쉬자고 하셨다.

예수님 | 『마가복음』 6:31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7

포용하는 마음은 공평함으로 이어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16장

容乃公

용내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08

강함을 알면서도 부드러운 자리를 지킨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8장

知其雄，守其雌

지기웅 수기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09

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장면에서 자기 몫을 살아간다.

에픽테토스 | 『엥케이리디온』 17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10

스스로 공을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남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2장

不自伐，故有功

부자벌 고유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11

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2장

不自矜，故長

부자긍 고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12

다투지 않기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이가 없다.

노자 |『도덕경』22장

夫唯不爭，故天下莫能與之爭

부유부쟁 고천하막능여지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3

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6장

重為輕根，靜為躁君

중위경근 정위조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4

흔들리고 잡기 어려운 마음도 잘 살피면 편안해진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35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5

억지로 붙들어 이루려 하면 오히려 잃을 수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為者敗之，執者失之

위자패지 집자실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6

억지로 하지 않기에 그르치지 않고 붙들지 않기에 잃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無為故無敗，無執故無失

무위고무패 무집고무실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7

모르는 것을 안다고 아는 것이 귀하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1장

知不知，上

지부지 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8

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1장

不知知，病

부지지 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19

일어난 분노를 달리는 수레를 다스리듯
제어하는 이를 참된 마부라 한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22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0

참으로 선한 이는 말다툼을 앞세우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善者不辯，辯者不善

선자부변 변자불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1

성인은 자신만을 위해 쌓아 두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聖人不積

성인부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22

다른 이를 위해 쓸수록 자신에게도 더해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既以為人己愈有

기이위인기유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23

사람에게 나눌수록 자신에게도 넉넉함이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既以與人己愈多

기이여인기유다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4

성인의 길은 일하면서도 다투지 않는 데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聖人之道，為而不爭

성인지도 위이부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5

문밖으로 나서지 않고도 세상의 이치를 헤아릴 수 있다.

노자 |『도덕경』47장

不出戶，知天下

부출호 지천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6

창을 엿보지 않고도 하늘의 길을 본다고 했다.

노자 |『도덕경』47장

不闚牖，見天道

부규유 견천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7

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에게 내게 오라고 부르셨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11:28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28

거친 밥에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도 좋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飯疏食飲水，曲肱而枕之

반소식음수 곡굉이침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7월

29

그 소박한 자리에도 즐거움은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

樂亦在其中矣

낙역재기중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30

서로를 적셔 주던 물고기도 넓은 강과
호수에서는 서로를 잊는다.

장자(우언 포함) | 『장자』 대종사

相濡以沫，不如相忘於江湖

상유이말 불여상망어강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7월

31

흘러가는 것은 이 물과 같아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逝者如斯夫，不舍晝夜

서자여사부 부사주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1

군자는 곤궁할 때에도 뜻을 지키지만 그렇지 못하면 흔들린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固窮，小人窮斯濫矣

군자고궁 소인궁사남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02

큰 군대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어도 한 사람의 뜻은 빼앗기 어렵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三軍可奪帥也，匹夫不可奪志也

삼군가탈솔야 필부불가탈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3

산을 쌓다가 한 삼태기를 남기고 멈췄다면
스스로 멈춘 것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譬如為山，未成一簣，止，吾止也

비여위산 미성일궤 지 오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4

평지에 한 삼태기를 쌓아도 앞으로
나아간다면 내가 나아간 것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譬如平地，雖覆一簣，進，吾往也

비여평지 수복일궤 진 오왕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5

살펴보지 않는 삶에 관해 소크라테스는 거듭 물었다.

소크라테스 | 플라톤, 『변명』 38a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6

지혜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방탕해질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好知不好學，其蔽也蕩

호지부호학 기폐야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7

믿음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好信不好學，其蔽也賊

호신부호학 기폐야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8

스스로 높이는 이와 자신을 낮추는 이의 자리를 되묻게 하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14:11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09

용기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혼란해질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好勇不好學，其蔽也亂

호용부호학 기폐야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10

강함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거칠어질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好剛不好學，其蔽也狂

호강부호학 기폐야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11

능력이 부족함을 걱정하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病無能焉，不病人之不己知也

군자병무능언 부병인지부기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12

사람의 작은 면만으로 재단하지 않으면 큰 그릇을 볼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不可小知，而可大受也

군자불가소지 이가대수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13

군자는 자긍심을 지니되 다투지 않고, 무리에 있어도 편을 짓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君子矜而不爭，群而不黨

군자긍이부쟁 군이부당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14

자기 허물을 보고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했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공야장

吾未見能見其過，而內自訟者也

오미견능견기과 이내자송자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15

뜻을 품은 이는 마음이 넓고 굳세야 한다.
짐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.

증자 | 『논어』 태백

士不可以不弘毅，任重而道遠

사불가이부홍의 임중이도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16

어짊을 자신의 일로 삼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다.

증자 | 『논어』 태백

仁以☒己任，不亦重乎

인이위기임 부역중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17

생이 다할 때까지 이어가는 길은 멀다.

증자 | 『논어』 태백

死而後已，不亦遠乎

사이후이 부역원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18

군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로

君子泰而不驕

군자태이부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19

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지혜로운
이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81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20

좋은 말은 힘보다 그 품성으로 평가된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驥不稱其力，稱其德也

기부칭기력 칭기덕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21

수많은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일이 귀하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03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2

뜻 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어짊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志士仁人，無求生以害仁

지사인인 무구생이해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3

어짊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경우도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有殺身以成仁

유살신이성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4

하지 않을 일을 분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하

人有不為也，而後可以有為

인유불위야 이후가이유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5

큰 사람이 되고 싶은 이에게 먼저 섬기는 길을 말씀하셨다.

예수님 | 『마가복음』 10:43-4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6

몸을 수고롭게 하고 배고픔을 겪게 하는 때도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고자 하

勞其筋骨，餓其體膚

노기근골 아기체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7

사람은 잘못을 겪고서야 고칠 수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고자 하

人恆過，然後能改

인항과 연후능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28

마음이 막히고 생각이 얽힌 뒤에야 다시 일어설 때가 있다.

맹자 |『맹자』고자 하

困於心，衡於慮，而後作

곤어심 형어려 이후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8월

29

표정에 드러나고 말로 나타난 뒤에야 서로 알게 될 때가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고자 하

徵於色，發於聲，而後喻

징어색 발어성 이후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30

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고 안일함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고자 하

生於憂患，而死於安樂也

생어우환 이사어안낙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8월

31

기준과 규범이 없으면 네모와 동그라미도 바르게 만들기 어렵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不以規矩，不能成方員

부이규구 불능성방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01

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돌본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以不忍人之心，行不忍人之政

이부인인지심 행부인인지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02

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데 맞설 적이 없다고 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상

仁者無敵

인자무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03

농사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이 넉넉해진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상

不違農時，穀不可勝食也

부위농시 곡불가승식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04

촘촘한 그물로 작은 물고기까지 거두지 않으면 물고기가 이어진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상

數罟不入洿池，魚鼈不可勝食也

삭고부입오지 어별불가승식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05

나무도 때를 맞춰 베어야 숲과 삶이 함께 이어진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상

斧斤以時入山林，材木不可勝用也

부근이시입산림 재목불가승용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06

누가 이웃인가 묻는 이에게,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는지 되물으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10:36–37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07

가을에는 거둔 형편을 살펴 모자란 곳을 돕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하

秋省斂而助不給

추생렴이조부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08

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 그들 역시 기쁨을 나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하

樂民之樂者，民亦樂其樂

낙민지낙자 민역낙기낙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09

사람들의 근심을 함께 근심하면 그들도 마음을 함께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하

憂民之憂者，民亦憂其憂

우민지우자 민역우기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10

선한 일을 이어가면 뒤에 오는 세대에도 길이 열린다고 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하

苟為善，後世子孫必有王者矣

구위선 후세자손필유왕자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1

다만 힘써 선한 일을 해 나갈 뿐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양혜왕 하

強為善而已矣

강위선이이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2

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재능을 쓸 수 있게 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尊賢使能，俊杰在位

존현사능 준걸재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3

다른 생명을 해치면서 고귀한 사람이라 할 수는 없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70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4

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다음이 나라며 임금은 그 뒤라고 했다.

맹자 |『맹자』진심 하

民為貴，社稷次之，君為輕

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15

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세상을 얻는 길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得其民斯得天下矣

득기민사득천하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6

그 마음을 얻어야 사람들이 함께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得其心斯得民矣

득기심사득민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7

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.
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| 『명상록』 7.7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8

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강요하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所惡，勿施爾也

소악 물시이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19

적음을 걱정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不患寡而患不均

부환과이환부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0

가난함보다 함께 사는 곳의 불안을 걱정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不患貧而患不安

부환빈이환부안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1

멀리 있는 이가 함께하지 않으면 덕을 닦아 맞이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遠人不服，則修文德以來之

원인부복 칙수문덕이내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2

이미 온 사람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계씨

既來之，則安之

기내지 칙안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3

공손하면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恭則不侮

공칙부모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4

스스로를 의지할 자리로 삼고 자신을 살핀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60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5

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맡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信則人任焉

신칙인임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26

민첩하게 움직이면 이루는 일이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양화

敏則有功

민칙유공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7

가장 작은 이에게 베푼 일을 자신에게 한 일로 받아들이셨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25:40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28

배움에는 사람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有教無類

유교무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09월

29

사람에게 실제로 이로운 일을 찾아 이롭게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요왈

因民之所利而利之

인민지소리이리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09월

30

쓸모 있는 것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것의 쓰임은 놓치기 쉽다.

장자(우언 포함) | 『장자』 인간세

人皆知有用之用，而莫知無用之用也

인개지유용지용 이막지무용지용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01

자신의 마음을 다해 살피면 그 성품도 알아간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盡其心者，知其性也

진기심자 지기성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02

마음을 살피고 성품을 기른다.

맹자 |『맹자』진심 상

存其心，養其性

존기심 양기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03

자신을 닦으며 그때를 기다린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修身以俟之

수신이사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04

구하면 얻고 놓으면 잃는 것도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고자 상

求則得之，舍則失之

구칙득지 사칙실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05

내게 달린 것을 먼저 구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求在我者也

구재아자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06

남의 눈 속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 들보를 돌아보게 하셨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7:3–5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07

행하고 익히면서도 그 뜻을 살피지 못할 때가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行之而不著焉，習矣而不察焉

행지이부저언 습의이부찰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08

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人不可以無恥

인불가이무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09

부끄러움을 아는 일은 사람에게 크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恥之於人大矣

치지어인대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10

덕을 소중히 하고 의로움을 기뻐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尊德樂義

존덕낙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1

어려울 때 의로움을 잃지 않고 형편이 풀려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士窮不失義，達不離道

사궁불실의 달부리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12

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 그 말을
받아들이는 판단도 함께 살핀다.

에픽테토스 | 『엥케이리디온』 20장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3

뜻을 펼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도 좋은 길을 나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達則兼善天下

달칙겸선천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4

어진 말만큼이나 어진 평판이 사람 마음에 깊이 닿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仁言，不如仁聲之入人深也

인언 불여인성지입인심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15

자신이 한 일은 스스로 돌아보고,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맑힌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65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16

배우지 않고도 할 줄 아는 바가 사람에게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人之所不學而能者，其良能也

인지소불학이능자 기량능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7

헤아리기 전에 이미 아는 바가 사람에게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所不慮而知者，其良知也

소부려이지자 기량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8

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無為其所不為

무위기소불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19

바라지 않아야 할 것은 바라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無欲其所不欲

무욕기소부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20

큰사람은 자신을 바르게 하면서 주위도 바르게 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有大人者，正己而物正者也

유대인자 정기이물정자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1

어짊과 의로움, 예와 지혜는 마음에 뿌리를 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仁義禮智根於心

인의례지근어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2

먹는 데에도 때를 지키고 쓰는 데에도 절도를 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食之以時，用之以禮

식지이시 용지이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3

물을 보려면 그 물결을 살피는 법이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觀水有術，必觀其瀾

관수유술 필관기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4

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가지 않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流水之為物也，不盈科不行

류수지위물야 부영과불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5

새벽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는 이가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雞鳴而起，孳孳為善者

계명이기 자자위선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26

잘못을 돌아보고 다시 찾아온 사람을
용서하는 일을 말씀하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17:3-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27

일을 한다는 것은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有為者，辟若掘井

유위자 벽야굴정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28

샘에 이르기 직전에 멈춘 우물도 결국 버려진 우물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掘井九軔而不及泉，猶為棄井也

굴정구인이불급천 유위기정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29

멈추면 안 될 곳에서 멈추면 다른 일도 쉽게 그만두게 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於不可已而已者，無所不已

어불가이이이자 무소부이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0월

30

너무 급하게 나아가는 이는 물러설 때도 빠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진심 상

其進銳者，其退速

기진예자 기퇴속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0월

31

가리키는 사람은 길을 보일 뿐, 길을 걷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276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1월

01

천 리 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.

노자 |『도덕경』64장

千里之行，始於足下

천리지행 시어족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2

배우고 때때로 익히니,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 1

學而時習之，不亦說乎

학이시습지 불역열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3

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 24

己所不欲，勿施於人

기소불욕 물시어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4

원한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. 원한을 놓을 때 비로소 그친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5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5

가장 높은 선은 물과 같다.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上善若水，水善利萬物而不爭

상선약수 수선리만물이부쟁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6

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, 모르는 것을
모른다고 하는 것. 이것이 아는 것이다.

공자 |『논어』위정 17

知之為知之，不知為不知，是知也

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7

예는 가까운 관계를 알맞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禮之實，節文斯二者是也

례지실 절문사이자시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8

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니,
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.

공자 | 『논어』 학이 1

人不知而不慍，不亦君子乎

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09

우물에 매인 개구리는 바다의 넓이를 말하기 어렵다.

장자(우언 포함) | 『장자』 추수

井蛙不可以語於海者，拘於虛也

정와불가이어어해자 구어허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0

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술이 22

三人行，必有我師焉

삼인행 필유아사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1

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돌아와 살펴야 한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 4

行有不得者，皆反求諸己

행유부득자 개반구저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1월

12

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맑게 하는 것. 이것이 깨달은 이들의 가리킴이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83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1월

13

말은 뜻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辭，達而已矣

사 달이이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4

병을 병으로 볼 줄 알기에 병에서 멀어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1장

夫唯病病，是以不病

부유병병 시이부병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5

움직일 때에는 알맞은 때를 따른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장

動善時

동선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6

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, 낮은 데서 배워 높은 데에 이른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不怨天，不尤人，下學而上達

불원천 불우인 하학이상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7

아름드리 큰 나무도 아주 작은 싹에서 생겨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合抱之木，生於毫末

합포지목 생어호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18

남을 사랑하는 이는 사랑을 받고, 남을 공경하는 이는 공경을 받는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하 28

愛人者人恆愛之，敬人者人恆敬之

애인자인항애지 경인자인항경지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1월

19

군자는 높은 뜻을 향하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헌문

君子上達，小人下達

군자상달 소인하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0

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,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 30

過而不改，是謂過矣

과이불개 시위과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1

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,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6:21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2

덕이 돈에서 생기는지, 돈보다 덕이 먼저인지를 물었다.

소크라테스 | 플라톤, 『변명』 30a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3

적으면 얻고, 많으면 미혹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22장

少則得，多則惑

소즉득 다즉혹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4

자신을 지키는 일은 지킴의 바탕이다.

맹자 | 『맹자』 이루 상

守身，守之本也

수신 수지본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1월

25

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5:9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6

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옹야

知者樂水，仁者樂山

지자요수 인자요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7

좋은 때보다 좋은 자리가 낫고, 좋은 자리보다 사람 사이의 화합이 낫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하

天時不如地利，地利不如人和

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8

남을 아는 이는 지혜롭고, 자신을 아는 이는 밝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33장

知人者智，自知者明

지인자지 자지자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29

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, 서 있는 곳마다 참되다.

임제선사 |『임제록』시중

隨處作主，立處皆眞

수처작주 입처개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1월

30

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, 큰 솜씨는 서툰 듯하며, 큰 말재주는 더듬는 듯하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5장

大直若屈，大巧若拙，大辯若訥

대직약굴 대교약졸 대변약눌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01

어진 이를 보면 본받을 것을 생각하고,
그렇지 못한 이를 보면 자신을 돌아본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見賢思齊焉，見不賢而內自省也

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02

말은 신중하게 하되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君子欲訥於言，而敏於行

군자욕눌어언 이민어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03

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德不孤，必有鄰

덕불고 필유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04

군자는 의로움을 알고, 소인은 이익을 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이인

君子喩於義，小人喩於利

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05

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,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깊다.

공자 | 『논어』 옹야

知之者不如好之者，好之者不如樂之者

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낙지자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06

남모르게 베푸는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.

예수님 | 『마태복음』 6:3–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07

어진 마음이란 무엇인가 묻자,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답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안연

樊遲問仁。子曰：愛人

번지문인 자왈 애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08

사해 안의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같다고 했다.

자하 | 『논어』 안연

四海之內，皆兄弟也

사해지내 개형제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09

예에 어긋나는 것은 보지 않고, 듣지 않고,
말하지 않고, 행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안연

非禮勿視，非禮勿聽，非禮勿言，非禮勿動

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0

나는 날마다 여러 번 스스로를 돌아본다.

증자 | 『논어』 학이

吾日三省吾身

오일삼성오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1

참고 견디는 일과 남을 해치지 않는 일을 귀하게 여겼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184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12

옛것을 익히며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溫故而知新，可以為師矣

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3

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편을 가르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정

君子周而不比

군자주이불비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4

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고,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않으며, 용기 있는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知者不惑，仁者不憂，勇者不懼

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5

추운 계절이 지나고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한

歲寒，然後知松柏之後凋也

세한 연후지송백지후조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16

벌떼 전체에 이롭지 않은 일이 한 마리 벌에게 이로울 수 있을까.

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| 『명상록』 6.5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7

스스로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따르고,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로

其身正，不令而行；其身不正，雖令不從

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18

서두르면 이르지 못하고, 작은 이익만 바라보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.

공자 | 『논어』 자로

欲速則不達，見小利則大事不成

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19

일을 잘하려는 사람은 먼저 연장을 날카롭게 한다.

공자 | 『논어』 위령공

工欲善其事，必先利其器

공욕선기사 필선리기기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0

적은 돈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보셨다.

예수님 | 『누가복음』 21:1–4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1

지나친 것도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.

공자 | 『논어』 선진

過猶不及

과유불급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2

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,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4장

知足不辱，知止不殆

지족불욕 지지불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23

어려운 일은 쉬울 때 헤아리고, 큰일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3장

圖難於其易，為大於其細

도난어기이 위대어기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24

끝을 시작처럼 신중히 하면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4장

愼終如始，則無敗事

신종여시 즉무패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5

성인은 한 가지 마음에 고집하지 않고,
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49장

聖人無常心，以百姓心為心

성인무상심 이백성심위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26

진리의 나눔이 여러 선물 가운데 으뜸임을 말씀하셨다.

부처님 | 『법구경』 354게송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7

진실한 말은 꾸밈이 적고, 아름답게 꾸민 말은 진실하지 않을 수 있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81장

信言不美，美言不信

신언불미 미언불신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28

하늘의 도는 편애하지 않고 언제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79장

天道無親，常與善人

천도무친 상여선인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12월

29

약속을 가볍게 하면 믿음을 잃기 쉽고, 일을 너무 쉽게 여기면 어려움이 많아진다.

노자 | 『도덕경』 63장

輕諾必寡信，多易必多難

경낙필과신 다이필다난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30

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어짊이 시작되는 자리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惻隱之心，仁之端也

측은지심 인지단야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연도 _____

12월

31

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이의 고통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.

맹자 | 『맹자』 공손추 상

人皆有不忍人之心

인개유불인인지심

같은 날, 다른 해에 남긴 나의 한 줄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

연도 _____ _____